

유리민속 한마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5월 토요일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May, Every Saturday 3:00Pm, Museum Auditorium

2016년 5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제947회

The 나린의 '모꼬지' 공연

The Narin 'Mokkoji' Performance

05. 07.



제948회

송미숙무용단의 예푸리

Song Meehuk's Yeopuri (Art performance)

05. 14.



제949회

이동준의 춤, 희노애樂

Dance by Lee Dongjun

'Happiness, Anger, Sadness and Enjoyment'

05. 21.



제950회

정명희의 춤

Dance by Jeong Myeonghui

05. 28.

5월 일요일열린민속무대

Sunday Performances in May, Every Sunday 2:00Pm, Museum Courtyard

2016년 5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제389회

연희 판놀음

'打 & 樂 콘서트'

Percussion Performance 'Concert Beat & Joy'

05. 01.



제390회

결련백견 한마당

Dynamic Taekkyeon Performance

05. 08.



제391회

담양우도농악 대동굿

Damyang Udo Nongak & Daedonggut

05. 15.



제392회

진도북놀이와 함께

Along with Jindobuknori

05. 22.



제393회

관객이 참여하는

단심줄 대동놀이 한마당

Dansimjurnori with Audience

05. 29.



우리민속 한마당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6월 공연일정 미리보기 Performance Schedule in June

06. 04. (토) 채수현의 삼색풍류(三色風流) 채수현(음악)

06. 05. (일) 날피북춤 비상하다 사)날피민속보존회(연희)

06. 11. (토) 김미란의 춤 '태평성대' 김미란(무용)

06. 12. (일) 해설이 함께하는 유네스코 택견 발광엔터테인먼트(무예)

06. 18. (토) 하늘의 소리, 땅의 노래 '일곱 빛깔 경기소리' 노경미(음악)

06. 19. (일) 향기 나는 마을굿 오광열(연희)

06. 25. (토) 한윤희무용단의 '몸짓의 소리' 한윤희(무용)

05. 26. (일) 전통연희와 풍류 '명가복가' 전통연희연구소(연희)

연희 판놀음 '打 & 樂 콘서트'

Percussion Performance 'Concert Beat & Joy'

2016. 05. 01.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에서 북을 두드리는 '타(打)-연주자'와 이를 즐기는 '락(樂)-관객' 모두가 신명으로 하나 되는 무대를 준비하였다.

공연에 앞서 관객들과 장단과 추임새를 함께 배워보고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첫 무대는 '타악퍼포먼스-천지인의 울림' 모듬북 난타의 웅장한 북소리로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서 2012년 세계무형문화유산(유네스코)에 등재되어 그 우수성과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는 '아리랑'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연곡으로 구성하여 공연한다. 다음으로 태평소와 사물놀이 이를 중심으로 새롭게 편곡한 신모듬은 우리음악의 신명과 경쾌한 박자가 돋보이는 공연이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어깨춤이 들썩이게 하는 진도북놀이 공연과 관객과 함께하는 대동놀이 한 마당으로 연희자와 관객이 함께 어울리며 잔치 한마당을 벌인다.

Traditional Performing Art Troupe called 'Janchimadang' presents a percussion performance indulging the audience with exuberant rhythms. Before the performance, a basic explanation about the rhythm and steps of Korean folk music will take place. The audience is encouraged to participate, though it isn't mandatory.

The first stage is a percussion performance -'Resonance of Heaven, Earth and Human', beginning with thunderous sounds from the drums, meanwhile, Arirang is injected into the performance match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music. Arirang, which was recognized as a Inter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UNESCO) in 2012, is well known for its excellence and artistry. Newly compiled Sinmodeum, contemporary assorted folk music, enhances the rhythmical and bright beat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based on Taepyeongso and samulnori. Next, drums from Jindobuknori(a style of drum beating in Jindo province) join the excitement. Finally, a collaborative performance called Daedongnori will unite the musicians and the audience in bliss.

공연순서 Program

- 01 장단, 추임새 배우기 Guidance for Rhythms and Steps
- 02 타악 퍼포먼스-천지인의 울림 Percussion Performance -'Resonance of Heaven, Earth and Human'
- 03 아리랑 연곡 Arirang Medley
- 04 태평소와 사물놀이를 위한 신모듬 Sinmodeum with Taepyeongso and Samulnori
- 05 진도북놀이 Jindobuknori
- 06 관객과 함께하는 대동놀이 한마당 Daedongnori with Audience



대표 서광일(전통연희단 잔치마당 대표)

출연 오승재, 김호석, 오부자, 나연임, 정하규, 김지원, 김현주, 유상호, 육명옥, 정은주, 김옥순, 김정미

The 나린의 '모꼬지' 공연

The Narin 'Mokkoji' Performance

2016. 05. 07.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국악관현악단 The 나린에서 '모꼬지'란 주제로 창작음악과 전통음악의 다채로운 국악연주를 선보인다.

'모꼬지'는 순수 우리말로 여러 사람이 한데모여 잔치나 놀이판을 여는 뜻을 말하는데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즐기자는 의미를 담았다.

첫 무대는 일본의 대표 애니메이션OST 작곡으로 유명한 하사이시조의 곡들로 우리의 국악기로 재편성하여 깊은 선율과 여운을 남게 하는 창작곡 'The wind forest'와 'Always with me'를 선보인다.

이어서 깊은 내면을 표현한 김소월의 시 '먼 후일', 다양한 전통장단과 재즈를 가미한 창작곡 Spring is gone, 판소리 춘향가 中 사랑가, 즉흥적이고 자유롭게 연주하는 시나위, 마지막으로 전통소리로 마음을 노래하고 봄과 여름의 풍경을 그리는 여름이 오는 소리 한자락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The Narin, Korean classical music group, presents variety of Gukak performance by creative and traditional music under the title of 'Mokkoji'.

'Mokkoji' is a Korean term that means "getting together to have a feast" and wishes to share, enjoy the stage with audience.

The opening 'The wind forest' and 'Always with me', which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Japanese animation film OST song from Joe Hisaishi.

'The Far Future', express an inner emotion and a poem by Kimsowol, 'Spring is gone', a creative song mixed with variety traditional rhythm and jazz beat, 'Sarangga', a love song from Pansori Chunhyangga, 'Sinawi', play improvisational and freestyle performance. 'The summer is coming' will be singing view of spring and summer will be finalized the whole stage.

공연순서 Program

- 01 The wind forest - 이웃집 토토로 ost The wind forest-OST song of My Neighbor Totoro
- 02 Always with me - 선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ost Always with me- OST song of Spirited Away
- 03 먼 후일 The Far Future
- 04 spring is gone Spring is gone
- 05 판소리 춘향가 中 사랑가 Sarangga, a love song from Pansori Chunhyangga
- 06 시나위 Sinawi
- 07 여름이 오는 소리 한자락 The Melody of Summer



대 표 현바름(The 나린 대표)

출 연 현바름(대금), 성한여름(아쟁), 조연희(가야금), 박지현(신디사이저), 이승백(타악), 오유미(경기민요), 김지윤(판소리), 윤보영(피리)

결련택견 한마당

Dynamic Taekkyeon Performance

2016. 05. 08.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이자 2011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도 등재된 택견 공연을 선보인다.

본 무대는 옛날부터 서울 중심으로 대단히 성행했던 사직골 한량들의 '우대택견패'와 구리개 군인들의 '아래대택견패'의 결련택견(마을과 마을단위의 택견 대항전) 한마당을 현대적으로 각색하여 유쾌하고 신명나게 공연형식으로 재현한다. 마을의 명예를 걸고 겨루는 택견꾼들의 용맹한 기상과 화려한 기술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를 이끌어 가는 풍물패의 신명나는 장단, 택견의 기술과 규칙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해설이 즐거움을 더할 것이다. 결련택견의 승패를 떠나 함께 어우러지며 즐기는 우리 선조들의 여유와 풍류정신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Kore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79, Taekkyeon will be presented. Gyeollyeon Taekkyeon is a village versus village match which was frequently played in and around Seoul during the old times between the 'Wudae Taekkyeon Troupe', noble men from Sajik village, and 'Areadae Takkyeon Troupe', soldiers from Guri village. Throughout a friendly competition, competitors will realistically demonstrate a dramatization of Gyeollyeon Taekkyeon. Impressive techniques and the fearless spirit of Teakkyeon masters are joined by the traditional percussion Pungmul band. The explanation and demonstration of Teakkyeon will be sure to delight the audience. Win or lose, the friendly competition of Gyeollyeon Taekkyeon will bring forward communal harmony, which means the spirits of composure and taste from Korean ancestors.

공연순서 Program

- 01 택견설명 Introduction to Taekkyeon
- 02 기본동작 시연 Demonstration of Basic Taekkyeon Moves
- 03 아랫발질 시연 Demonstration of Ahraetbaljil (low-kick)
- 04 태기질 시연 Demonstration of Taegiljil
- 05 윗발질 시연 Demonstration of Witbaljil (upper-kick)
- 06 결련택견 재현 Representation of Gyeollyeon Taekkyeon
- 07 관객체험 발등밟기 Baldeungbapgi Nori (a game of treading on foot) with Audience



대표 도기현(사)결련택견협회 회장
출연 황인무, 이찬재, 대우석, 신승남, 이천희, 박현준, 동은실, 권희준 조희연, 최예진, 박성우, 박강필

송미숙무용단의 예पुर리

Song Meesuk's Yepuri (Art performance)

2016. 05. 14.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몸이 표현하는 서사를 통해 인생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송미숙무용단의 농익은 춤사위에 담아 전통무용을 선보인다.

우리민족 고유의 몸짓을 체득하고 시연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송미숙무용단은 전통춤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공연이다.

첫 무대는 아름답고 화려한 부채를 들고 기하학적인 대형과 우아한 움직임으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부채춤을 선보인다.

이어서 화창한 봄날 제비들이 노니는 듯한 연흥무, 장구를 비스듬히 둘러메고 아름다운 연보로 걸어 다니며 추는 장고춤, 나뭇가지에 노래하는 피꼬리의 자태를 무용화 한 궁중무용 춘앵전, 왕비의 복식을 입고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태평무, 진주의 김수악선생에 의해 전승되어 오는 교방굿거리춤, 경쾌한 장단에 역동적인 춤사위로 신명을 자아내는 반고무, 마지막으로 흥겹고 신명난 진도북춤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Song Meesuk's Dance Company prepares traditional dance performance to represent human feeling like joy, anger, sorrow and enjoyment by dance performance.

Especially, The Dance company try to conservation and succession of traditional dance by motion and practice.

The opening 'Buchaechum', a fan dance well-known for its elegant beauty and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e following is 'Yeonheungmu', describing a swallow in spring, 'Janggochum', performed by dancer with a Janggo crossly on her shoulder, 'Chunaengjeon', a dance performance sweet voice of nightingale on the tree, 'Taepyeongmu', wearing clothes of queen and a dance wishing a great peace for country, 'Gyobang gutgeorichum', carrying on mater Kim suak from Jinju region, 'Bangomu', dynamic bounce and rhythmical rhythm to bring a fun. Lastly, 'Jindo bukchum' bring excitement for both performer and audience to embellish the finale.

공연순서 Program

- | | |
|---------------------|------------------------------|
| 01 부채춤 Buchaechum | 05 태평무 Taepyeongmu |
| 02 연흥무 Yeonheungmu | 06 교방굿거리춤 Gobanggutgeorichum |
| 03 장고춤 Janggochum | 07 반고무 Bangomu |
| 04 춘앵전 Chunaengjeon | 08 진도북춤 Jindobukchum |



총예술감독 및 사회 송미숙(국립진주교육대학교 교수)

연출 김차희

출연 배순열, 홍재섭, 조경숙, 허복희, 최현주, 노채명, 서진희, 김신애, 김성민, 변영화, 최윤실, 조선화

담양우도농악 대동굿

Damyang Udo Nongak & Daedonggut

2016. 05. 15.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전라남도 지역의 담양우도농악을 선보인다. 담양우도농악은 설장구 보유자 김동연으로부터 가락과 진법을 옛 그대로 전승되어오고 있으며,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굿머리를 장식하는 '오채질굿'은 2박과 3박이 교차박으로 어우러져 시작과 끝이 분간하기 어려우면서도 현묘한 흥과 멋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마디로 부조화 속의 조화를 이루면서 신바람을 일으킨다. 둘째, 호남우도농악의 특징인 설장구놀이는 그 가락의 섬세함과 다양성, 그리고 부드럽우면서도 끊고 맺는 춤사위가 흥을 돋운다. 셋째, 잡색놀이꾼들은 다른 지역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넷째, 연희자 모두가 진법 따라 일사불란하게 대형을 이루면서 판을 짜고 풀어간다. 관람객들은 본 공연을 통해 담양농악의 특징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Damyang Udo Nongak, literally means, farmer's music of southern Jeolla province will be presented in this program. Damyang Nongak preserves traditional rhythms, formations and the regional distinct characteristics. The typical features are described below: First, throughout the combination of duple and triple beats in Ochaejilgut, performers play tangled rhythmic patterns, which smudge the starting and the ending point of the rhythm to create harmonic incongruities. Secondly, Seoljanggu Nori which is the trait of Honam Udo Nongak cheers the audience throughout delicate and varied rhythms along with soft yet stiff dancing steps. Third, archetype of mask dance called Japsaeknorikkun(literally, the play of all kinds of people)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other regions. Forth, to show the dancing in perfect order, all the performers perform in accordance with the formation. The audience will enjoy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Damyang Nongak.

공연순서 Program

- 01 오채질굿 마당 Ochaejilgut Madang
- 02 오방진 마당 Obangjin Madang
- 03 호허굿 마당 Hoheogut Madang
- 04 잡색놀이 Japsaeknori
- 05 부포놀이 Buponori
- 06 고깔소고춤 Goggal Sogochum
- 07 김동연류 설장구 Kim Dongeon-ryu Seoljanggo
- 08 대동놀이 Daedongnori



대표 오현범(사단법인 우도농악담양보존회 이사)

출연 장이환, 최혜경, 강다연, 한호숙, 정호정, 김주범, 최웅식, 한종아, 금성현, 맹은주, 김인주, 한난희, 배경진, 배영숙, 정난채, 김숙자, 김재순, 반은정, 황규란, 조정희, 김화순, 박해원, 조진미, 김희순, 최재숙, 이수옥, 양정심, 길순자, 김상희, 류제민, 김금자, 박주화, 양승화, 김남순

이동준의 춤, 희노애樂

Dance by Lee Dongjun 'Happiness, Anger, Sadness and Enjoyment'

2016. 05. 21.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젊은 춤꾼 이동준을 중심으로 개성 있는 춤꾼들이 모여 희노애락(喜怒哀樂)을 펼쳐놓는 전통무용을 선보인다.

우리춤의 역사적 맥을 통하여 한국무용의 미를 표출하며 더욱 올바르게 이어나가기 위한 공연이다.

본 무대의 한량무는 그동안 회상과 완속미를 표현한 기존의 춤과 다르게 호방하면서도 치기어린 한량을 보여주며, 사랑가와 아박무에서는 전통의 재해석을 통해 또 다른 즐거움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밖에 김수악류 교방굿거리춤과 구음검무, 조갑녀류 민살풀이, 박병천류 진도북춤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며 전통무용의 다양성을 더하는 춤들을 선보인다. 다양한 춤사위의 감동과 더불어 멋과 흥, 신명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In this stage, Lee Dongjun presents traditional Korean dance pieces with talented dancers under the title of 'Happiness, Anger, Sadness and Enjoyment'.

Understanding of history of Korean traditional dance to well performing and describing of beauty of Korean dance. 'Hanryangmu', the most representative dance piece for men, luxurious seonbi(scholar in Joseon Dynasty's) offer distinctive moves to remembrance of past time and show more perfection, for 'Sarangga and Abakmu', reinterpreted of Tradition to bring another fun to audience, 'Gyobang Gutgeorichum and Gueum Geommu' of Kimsuak school, 'Minsalpuri' of Jogapnyeo School, 'Jindo bukchum' of Park Byeongcheon shool will stimulate of five senses and show variety of traditional dance pieces. With the Various type of dance performance will leave a lasting impression to the audience and ultimate excitement to close the whole stage.

공연순서 Program

- 01 진주교방굿거리춤 Jinju Gyobang Gutgeori Chum
- 02 사랑가 Sarangga
- 03 구음검무 Gueumgeommu
- 04 한량무 Hanryangmu
- 05 민살풀이(조갑녀류) Minsalpuri(Jogapnyeomu)
- 06 아박무 Abakmu
- 07 진도북춤 Jindobukchum



대표 이동준(코리안댄스컴퍼니컬 대표)

연출 서진주

출연 김미선, 서진주, 서정숙, 성윤선, 이상연, 이동준, 박수정, 이상세, 유경완, 엄희정, 정연지

진도북놀이와 함께

Along with Jindobuknori

2016. 05. 22.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전라남도 무형문화제 18호 진도북놀이(양태옥류)를 선보인다.

진도북놀이는 마을 축제나 결혼, 농사과정에서 행하였고 이런 문화의 원류는 풍물놀이에서 시작되었다.

진도북놀이의 특징은 북을 장구처럼 비스듬히 어깨에 메고 쌍북채를 사용하여 자유로운 가락과 묘기를 변화무쌍하게 구사하며, 느린 곳거리에서 무거운 춤을 추며 내면적인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투박스럽게 뛰고 힘차게 북을 울려 생동감을 주며 자연스럽게 단순한 춤사위를 연출하여 다양함을 선사한다.

본 무대를 통해 우리 민속의 멋과 흥을 느끼고 신명으로 하나 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This drum performance presents Jeollanam-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18, Jindobuknori Yang Taeok Ryu. A style of drum beating in Jindo province called Jindobuknori was played during the village festival, wedding, and farming. In other words, the origin of those cultures began from Pungmulnori, plays and musics of farmers.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Jindobuknori is the different way of carrying the drums. As the way of carrying the double-handed drum called Janggu, players carry Buk(one-handed drum) sideways on their shoulder. Then, throughout the performance, the drummers create rhythmical melodies using brilliant techniques with a pair of drumsticks. In particular, various styles of natural and simple dance movements will be conducted. In order to express emotion through dignified dance moves in slow music or through powerful drum beats with masculine movements.

The performance will produce much mirth among the audience through the style and joy of Korean folk culture.

공연순서 Program

- 01 사물놀이 Samulnori (Korean Traditional Percussion Quartet)
- 02 입춤 Ipchum
- 03 한량무 Hanryangmu
- 04 판굿 Pangut
- 05 진도북놀이 Jindobuknori



대표 박강열(전라남도 무형문화제 18호 진도북놀이 보유자)

출연 박강열, 이기서, 박상준, 김은숙, 이혜주, 지연숙, 임상욱, 정현희, 김주선, 김희순, 박은희, 배현영, 백지원, 이정현, 이소초, 박준서, 박주완 장미경

정명희의 춤

Dance by Jeong Myeonghui

2016. 05. 28.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국악의 성지 남원 춘향제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명무 조갑녀 선생의 춤을 전 수교육조교인 정명희가 준비했다.

조갑녀류 춤사위 중 승무는 고종의 어전에 나섰던 이장선(1866-1939)에게서 전해 내려온 춤이다. 장단과 복식, 춤사위가 궁중무에 바탕을 두고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그대로 지닌 춤으로 춤의 기본과 정신을 지금까지 지켜온 춤이다. 또한 조갑녀류 춤사위 중 빼놓을 수 없는 춤으로 민살풀이 춤을 선보인다. 민살풀이춤은 호남 무속 살풀이 장단에 엄격한 규칙이 있어 보이지만 자유롭게 절제미가 돋보이는 즉흥춤이다. 손에 드는 소품이 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속 멋으로 정중하고 무겁게 추는 살풀이 춤이며 예인으로서 예도를 지키면서 우리의 깊은 한과 멋을 흥으로 승화시킨 민살풀이 춤이다.

Jeong Myeonghui, assistant of mater Jogapnyeo, presents dance performance contains the history of Chunhyang festival in Namwon, a scared plac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mong the performance, Seungmu which is one of dances of Jo Gap nyeo school has been transmitted from the last master of Joseon's court dance, Lee Jang-seon(1866-1939). Rhythms, costumes and steps used in Seungmu are rooted in court dance tradition. This particular dance piece has retained the basics and spirit of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describes the originality of the korean as it is. Also, 'Minsalpuril' which is indispensable piece of Jo Gap-nyeo's dance works will be presented. In min-salpurichum, a dancer performs with a traditional shamanic rhythm of Honam region, 'Salpuril'. Minsalpurichum, though seems to have rigid rules of style or movement, is an impromptu dance encompassing free spirit yet moderate characteristics. Jo's min-salpurichum is a minimalist version; performed with bare hands rather than using a cloth. Through a dancer's heavier hand movements and dignified steps, the audience may appreciate the sentiment of deep sorrows of korean people sublimated into merriment and mirth.

공연순서 Program

- 01 가야금병창 Gayageum byeongchang
- 02 조갑녀류 승무 Jo Gap-nyeo Ryu Seungmu
- 03 태평무 Taepyeongmu
- 04 진도복춤 Jindobukchum
- 05 흥춤 Heungchum
- 06 조갑녀류 민살풀이춤 Jo Gap-nyeo Ryu Minsalpurichum



대표 정명희(조갑녀 전통춤 보존 회장)

출연 정명희, 최정옥, 박채훈, 이윤자, 이계영, 고연세, 이미래, 강보령

관객이 참여하는 단심줄 대동놀이 한마당

Dansimjulnori with Audience

2016. 05. 29.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넉넉하고 푸짐하며, 삶의 생동감이 넘치는 전통연희 한마당과 단심줄놀이를 선보인다.

첫 무대는 '천지오방신'에 축제를 알리는 의미로 세상 모든 경계를 이어주고 소통을 의미하는 '문굿'으로 공연을 시작한다. 이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만사가 씬 없이 펼쳐지는 이치와 같이 풍물패의 굿 가락도 쉬지 않고 이어진다는 뜻에서 걸어가며 연주하는 '길굿', 연희자의 힘찬 진풀이로 자신의 밝아 무사태평을 기원하고, 액을 물리치며 개개인의 악기별 기량을 선보이고 뽐내는 '마당판굿'을 선보인다. 마지막 순서는 모두가 화합하고 행복해지자는 의미에서 연희자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직접 공연 참여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대동놀이인 단심줄놀이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Both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nd Dansimjulnori, a traditional maypole dance will be demonstrated in this performance.

In order to bring awareness of the festival to Cheonjobangsins (the guardian god of heaven and earth, and five directions), 'Mungut', a wishful performance opening communications and connections beyond all boundaries will open the stage. In sequence, 'Gilgut', as a metaphor for an idea meaning everything has come and gone during our lives on earth. The percussion troupe will dance around playing the rhythms of ritual music.

Performers conduct a rite Jsinbapgi to scare misfortune away and bring forth good luck. Afterwards villagers present their individual skill with musical instruments in 'Madangpangut'. A traditional play similar to a maypole dance called Dansimjul Nori will then take place. To strengthen community spirit, the audience is invited to participate in taking the colorful ribbons attached to the pole and weaving them together with assistance from the performers.

공연순서 Program

01 불꺼리 마당(전통판굿) Performances (Traditional Pangut)

- 1) 문굿 Mungut
- 2) 길굿 Gilgut
- 3) 마당판굿 Madangpangut

02 놀꺼리 마당(대동놀이) Entertainments (Daedongnori)

- 단심줄놀이 Dansimjulnori



대표 서신석(전통연희단 예도통천 대표)

출연 서신석, 정일협, 최보근, 장혜니, 노진우, 민재경, 김재균, 구자호, 유선화, 송숙진, 윤용기, 조다애, 홍성준, 김영은, 김복희, 손화자, 박성자, 정정자, 정청자, 맹경자, 최길례, 양승임, 한창자, 김홍배, 유선복, 김철호, 박영희, 최철자, 허영숙, 김태환, 김성연, 이난형, 정연주, 이주희, 정민우, 정은경, 서여원, 서정원